

## 호랑이 3번타자 깜이 없다



**이종범·김원섭 '체력 부담'·안치홍 '경험 부족' 조범현 감독 '클리업 트리오 한 축 찾기' 안간힘**

KIA 타이거즈가 3번 타자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5월 들어 KIA의 방망이의 움직임이 한결 매서웠지만 선수들의 부진과 부상으로 중심 타선의 구성을 놓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변동이 심한 자리는 3번이다. 시즌 초반에는 나지완이 출루 3번을 지켰지만 타선의 동반 침체 속에 기대했던 활약이 나오지 못했다. 이후 이종범, 홍세암, 안치홍, 이종환, 김원섭 등이 3번 자리를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몸이 안벽치 못했다던 홍세암은 이내 2군으로 자리를 옮겼고, 연습생 신화를 꿈꿨던 이

종환의 1차 시험도 실패로 돌아갔다. 이종범과 김원섭은 노련미로 자리를 지켜왔지만 '체력'이 문제다.

백전 노장 이종범과 만성 간염을 앓고 있는 김원섭은 부진했던 4월 고군분투하느라 최근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안치홍과 나지완은 '경험부족'이라는 벽을 넘어야 하는 입장이다.

드문드문 4번 타자 최희섭이 버티고 있는 만큼 상대 마운드는 3번 타자와의 승부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이제 2·3년차인 안치홍과 나지완은 마운드의 총력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희섭과 함께 중심타선을 구성했던 김상현의 부상 공백도 클리업 트리오의 한 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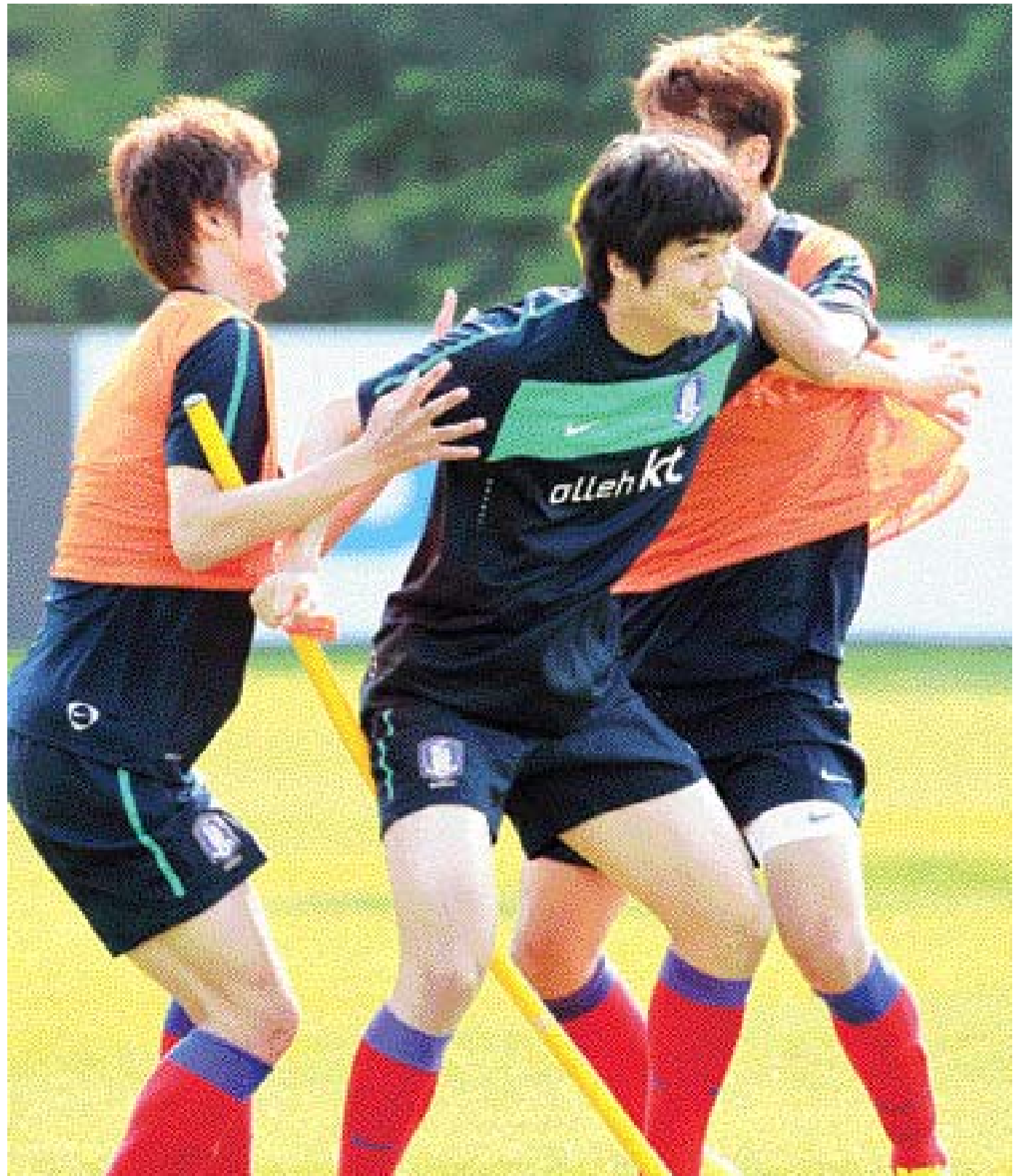
3번 자리에 대한 부담감을 더하고 있다.

12일 넥센과의 경기에서는 안치홍이 3번을 맡았지만 안타 없이 두 개의 삼진을 당하며 돌아섰다. 4·5번으로 나란히 출격할 최희섭과 나지완도 6개의 삼진을 더하며 클리업 트리오의 타석이 모두 불발로 돌아갔다.

안치홍은 "3번을 맡든, 하위 타선을 맡든 자리에 대한 부담감은 없다"면서도 "4번 최희섭 선배와의 승부보다는 아무래도 3번에서 더욱 승부를 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어려운 대결이 이뤄지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들쭉날쭉한 타자들의 전력에 고심했던 조범현 감독은 지난 12일 2·3군의 흥행전을 보기 위해 직접 합평 구장에 다녀왔다. 이영수와 이종환을 새로 불러들이며 타선의 변화를 준 KIA는 13일 경기에서는 김원섭을 3번 타자로 출전시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훈련은 즐겁게

13일 오후 피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한국축구대표팀 훈련에서 기성용, 이승렬 등이 릴레이 경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기흥수술' 이대진 1군 합류

'백전 노장' 이대진이 그라운드에 돌아왔다.

KIA 타이거즈는 13일 투수 이대진을 1군 엔트리에 등록했다. 이대진은 올 시즌 선발진으로 활약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지난 3월12일 기흥(폐에 구멍이 생긴병) 수술을 받으며 2군에서 재활을 해왔었다.

2군 4경기에 출전해 경기감각을 조율해왔던 이대진은 13일 1군에 복귀하며 2010시즌을 시작했다.

이대진은 중간에서 컨디션을 점검한 뒤 전태현을 대신해 선발 로테이션을 지킬 예정이다. 지난 5일 류현진과의 맞대결에서 프로데뷔 첫 승을 챙기며 기대를 모았던 전태현은 12일 넥센과의 경기에서 3피안타 5사사구로 4실점을 하며 2이닝 만에 강판, 2군행을 통보 받았다.

## 이종환·이영수도 복귀 기대주 전태현은 2군행

이대진의 복귀와 함께 야수진의 엔트리 변경도 이뤄졌다. KIA는 포수 이성우, 내야수 홍재호를 2군으로 내리고 외야수 이종환과 이영수를 1군으로 불러들였다.

이대진의 복귀와 함께 야수진의 엔트리 변경도 이뤄졌다. KIA는 포수 이성우, 내야수 홍재호를 2군으로 내리고 외야수 이종환과 이영수를 1군으로 불러들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박주영 소속 AS모나코 7월 방한경기 추진

프랑스 프로축구 무대에서 뛰는 '축구 천재' 박주영(25·AS모나코)이 상암별에서 모나코 유니폼을 입고 K-리그의 친정팀 FC서울과 경기에 나설 수 있을까.

박주영의 소속팀인 프랑스 프로축구 모나코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직후인 오는 7월 초순 방한 경기를 추진하고 있다. 모나코와 방한 경기 운영권을 떠낸 국내 업체는 최근 서울에 친선경기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나코는 수도권 및 지방 구단 등 두 팀과 친선경기를 벌일 계획이다. 경기 날짜는 월드컵 결승전(7월12일) 직전인 7월 8일부터 11일 사이다.

K-리그 후반기가 7월17일 재개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

한편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명문 클럽인 FC바르셀로나와 올해 유로파리그 정상에 오른 같은 프리메라리가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방한 경기를 타진하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아시아투어의 하나로 8월4일 또는 5일 방한 경기를 계획하고 있으나 상대팀으로 희망하는 FC서울이 8월4일 제주 유니시티와 K-리그 15라운드 홈경기가 잡혀 있다. 일정이 조정되지 않으면 바르셀로나와 친선경기가 열릴 수 없다. 서울은 아직 바르셀로나로부터 공식적인 제안을 받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

## “허정무호 첫 골 박지성이 쏜다”

### 축구팬 남아공 월드컵 설문



축구팬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에서 한국 대표팀의 첫 골은 주장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일본 온라인 마케팅 리서치기업 마크로밀의 한국 법인 마크로밀코리아는 지

난 10일과 11일 서울 등 6개 도시에 거주하는 20~50대 남녀 축구팬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첫 골을 넣을 선수?'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159명이 박지성을 선택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지성은 미드필더이지만 대표팀 주전 공격수인 박주영(AS모나코·124명)을 제치고 첫 골 주인공으로 꼽혔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인상적인 데뷔 첫 시즌을 보낸 미드필더 이청용(볼턴·57)이 3위를 차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국외와 선수들에 대한 축구팬의 기대가 컸다. /연합뉴스

### 남아공 월드컵 홈페이지

### 남북선수 사진 바꿔 게재

국제축구연맹(FIFA)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과 북한 선수단 사진을 바꿔 실는 실수를 했다.

13일 오후 6시 현재 FIFA 남아공 월드컵 홈페이지의 경기 일정(Matches)에서 B조 조별리그 1차전 한국-그리스 경기의 배경(Background) 항목으로 들어가면 통계(S-

tistics) 란의 한국 선수단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북한 선수단 사진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아르헨티나, 한국-나이지리아 경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반면 북한 선수단 사진이 들어가야 할 G조의 북한-브라질, 북한-포르투갈, 북한-코트디부아르의 통계란에는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청용(볼턴)·박주영(AS모나코) 등 한국 대표팀 선수들의 사진이 실렸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대한축구협회는 FIFA에 사진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아르헨 '펠레의 저주' 희생양 될까

### 남아공월드컵 D-28... 진기록과 전망

1930년 제1회 우루과이 월드컵부터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까지 80년 동안 계속된 축구 월드컵은 그 긴 역사만큼이나 많은 진기록이 있다.

호나우두(34·브라질)의 개인 통산 최다 골과 한국-터키 경기에서 나온 최단시간 골 기록 등 각종 진기록은 월드컵을 보는 또 다른 재미다.

이번 남아공 월드컵에서도 다양한 기록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 최다 골 주인공은 누구=월드컵 본선 통산 최다 골 기록은 호나우두가 보유한 15골이다. 그러나 현재 브라질 리그에 소속된 호나우두는 올 시즌 내내 거의 경기를 뛰지 못해 남아공 월드컵에는 출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경기 최다 골은 올레고 살렌코(러시아)가 1994년 미국 월드컵 본선에서 카메룬을 상대로 작성한 5골이다.

또 한 대회 최다 골 기록은 쥐스트 폰텐(프랑스)이 1950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세운 13골.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와 웨인 루니(잉

글랜드·디디에 드로그바(코트디부아르) 등 최고의 골잡이가 모두 출전하는 이번 남아공 월드컵에서 어떤 선수가 몇 골을 넣어 득점왕에 오를지 관심을 끈다.

경기 시작 후 최단시간에 나온 골은 한국이 현남한 것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3·4위전에서 터키의 하칸 슈퀴르르는 경기 시작 11초 만에 골을 터뜨렸다.

◇ 카르바랄·마테우스 최다 대회 출전 5회=월드컵 본선 '무대를 한 번이라도 밟아 보는 것은 모든 축구 선수의 꿈이다.

그런데 총 5개 월드컵 대회에서 땀 흘린 선수도 2명이나 된다. 멕시코 골키퍼였던 안토니오 카르바랄과 독일 리베로 로타어 마테우스다. 가장 많이 우승 트로피에 입을 맞춘 선수는 '축구황제' 펠레다.

펠레는 브라질이 1958년, 1962년, 1970년 세 차례 월드컵에서 브라질의 우승을 이끌었다.

◇ 브라질, 월드컵 기록 경신 하나=영원한 우승후보 브라질은 이번 남아공 월드컵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19차례 연속 본선에

진출한 유일한 국가다. 역대 최다인 5번 정상에 오른 브라질은 6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브라질은 월드컵 본선 최다경기 기록을 92경기에서 늘려갈 예정이며 본선 최다 골도 201골에서 계속 보태게 된다.

독일은 지난 월드컵까지 브라질과 같은 92경기를 뛰었다.

◇ '펠레의 저주' 희생양은 브라질 축구 영웅인 펠레는 은퇴 후 그가 월드컵 우승후보로 꼽은 팀이나 칭찬하는 선수는 모두 뜻을 이루지 못하거나 부진해 '펠레의 저주'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펠레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는 스페인,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는 프랑스를 우승 후보로 꼽았지만 두 팀 모두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펠레는 이번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브라질과 스페인이 우승에 가장 근접했고 잉글랜드·이탈리아·아르헨티나와 같은 팀을 알바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에선에서 부진했던 아르헨티나를 두고서는 "본선에서 전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주가 맞아떨어진다면 같은 조에서 아르헨티나와 맞붙는 한국으로서는 기뻐할 만한 일이다.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www.kitr.com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수원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울산점 (062) 227-9970